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의 군집 예측가능성*

전 은 옥** · 최 나 야***

본 연구는 취학 직전 만 5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각 군집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9개 유치원의 만 5세 유아 239명(남아 120명, 여아 119명)과 해당 유아의 어머니 2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의 수준에 따라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의 4군집이 분류되었다. 둘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하위 요인인 '자기점검', '자기통제'와 어머니의 학습관여 하위 요인인 '존중과 사랑'은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군집이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군집보다 높고, '학업성과압력'은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군집이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군집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자기점검'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의 '학업성과압력', '가정학습활동', '존중과 사랑'이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 구분을 예측하였다.

주제어(Key Words) : 기초학습능력(Basic Learning Ability)

성취기대불안(Achievement Expectation Anxiety)

군집화(Clustering)

* 이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박사, 제 1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교신저자(choinaya@catholic.ac.kr)

I. 서론

최근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생애 초기 출발점의 평등 보장을 기조로 하는 기초학습능력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기초학습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은 학습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능력으로 장차의 학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험이다. 그런데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에는 개인차가 나타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취학 후 10% 정도의 아동이 학업 성취도 미달을 보이고(김동일, 이대식, 신중호, 2009), 이로 인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학습부진, 학습장애, 발달지체, 생활 기술 부족 등이 나타나 삶의 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권효경, 이종승, 2011; 김동일, 최종근, 2004). 학습은 초등학교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생후부터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은 이후 학습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남희, 황해익,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에 형성되는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청소년기와 비교해볼 때 유아의 학습능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고령화와 정보화, 치열한 경쟁 등의 현상은 부모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줄어든 자녀수에 반비례하여 커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부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녀의 학업 성취에 강하게 관여하고, 자녀의 학업 성취를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부모의 문제로 확대 인식하여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이민경, 2007; 한정환, 2007). 이에 따라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한 기대 목표를 자녀가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는 기대심리로 인해 자녀를 대리만족의 도구로 인식하기도 한다(한성열, 2008). 한두 명으로 감소한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기대감이 증가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관심 및 교육투자뿐 아니라 스트레스 또는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자녀와 관련된 부모의 불안은 다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 교육에 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커지면 불안이 강해지고, 자녀의 능력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갖게 되며, 자녀의 과제 수행에 대한 간섭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insbure, Grover, Cord, & Jalongo, 2006).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수준 자체는 자녀의 학습능력과 관계가 없다거나(정명숙, 고은미, 2007),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을 때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권재기, 2001; 김경근, 1996; 김마리아, 2013)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엇갈리는 결과에 대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 가정마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친다거나(Balsky, 1997; Gallagher, 2002), 기대수준의 영향이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모의 적정 기대수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부모의 기대수준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거나 낮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적다. 따라서 기대수준에서 더 나아가, 부모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심리상태인 불안을 살펴본다면, 부모의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고(이문정, 2003), 점차 증가하는 양육불안 수준을 보이는(위지희, 채규만, 2015; 최순자, 심공창지, 이광형, 2006)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과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에 동시에 접근하여 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런데 유아의 인지발달을 보여주는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인 성취기대불안에서는 각각 개인차가 나타나고, 두 변인 간에 선형적 관계가 있기는 어렵다(김정근, 1996; 정명숙, 고은미, 2007). 따라서 변인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 접근을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묶음으로써 집단을 군집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이 가정마다 다르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군집이 규명된다면, 유형론에 따른 적합한 환경 또는 중재안을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유아의 학습 위험군을 예측 및 예방하며, 맞춤형 교수학습방법과 부모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찾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이 두 변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자기조절능력이란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문제에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Sluyter & Salovey, 1997), 목적에 대한 추구를 지연하고 환경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멈추며, 행위-정서-각성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성인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행동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Brownell, Etheridge, Hungerford, & Kelley, 1997; Kopp, 1982)을 말한다. 초등학교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유아는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습득하게 되고(도현심, 이희선, 김상희, 최미경, 이사라, 2011),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곽아정, 2006).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문제해결, 추론, 사회인지 능력뿐 아니라 부적 정서에 대한 통제와도 관련되며, 읽기, 쓰기, 수학적 능력과 같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임선아, 2013; Bronson, 2000). 아동이 적절한 자기조절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낮은 학업 성취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Blair, 2002; O'Shaughnessy, Lane, Gresham, & Beebe-Frankenberger, 2003).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 형성에 중요한 개인 변인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령기 이상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을 살펴보았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기초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불안은 학습지도와 관련된 양육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은 자녀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자녀가 해내길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가 자녀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타난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강할수록 자녀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강하고,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나타나며(위지희, 채규만, 2015), 유아의 과제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유진, 2016). 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와 관심이 높을수록 학습관여가 높아져(김종백, 김준엽, 2009; 심미옥, 2003; 추상엽, 임성문, 2008; 홍영주, 이지연, 2012), 긍정적으로는 자녀의 자율성 지지,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격려, 스스로 학습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태도를 키워준다(김연수, 2008; 정현숙, 2002). 반면에, 과도한 학업압력을 보이는 부모는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켜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이어지게 한다(임종석, 2000). 즉, 어머니의 학업성취기대는 불안 심리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적인 학습관여와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의 방향은 단순히 기대 수준보다는 그에 따른 불안 정도나 학습관여 행동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안이라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성취 결과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변인으로 자녀의 학습에 대한 어머니의 관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에 따른 군집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의 상호작용 집단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의 기초학습능력 성취에 요구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중재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라 군집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연구문제 2.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별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 구분을 예측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표집한 유치원 9곳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로 수집된 자료 중 문항이 누락되거나 응답에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유아와 어머니 각각 239명과 유아의 정보제공자인 학급교사 17명을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1) 유아의 기초학습능력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에서 개발한 취학 직전 아동의 읽기·쓰기·수학 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담 방식의 지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총 3개의 영역으로 읽기(36문항), 쓰기(20문항), 수학(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은 원척도의 문장 읽기(읽기)와 받아쓰기(쓰기)는 각각 1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3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읽기와 수학에서 모두 만점인 3문항은 삭제하였다. 평가 점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읽기, 쓰기는 음절로, 수학은 문항별 0-2점으로 채점하여 총점으로 합산한 후 100점 만점의 환산점수로 변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초학습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9이며 하위 요인별로 읽기 .78, 쓰기 .84, 수학 .74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위지희(2014)의 양육불안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불안 중에서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불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총 2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재추출한 기존의 '완벽주의로 인한 양육불안' 7문항에 학습과 관련된 일부 2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척도 상관분석을 살펴본 결과 .59-.75의 높은 상관으로 최종 9문항이 선정되었다.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 기준을 부여하고 그 기준에 자녀가 완벽하게 부합하길 기대하며, 자녀가 어머니의 높은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을 의미하는 것(예 : '나는 아이가 내 기

준에 맞지 않아 다그치게 된다.’, ‘나는 아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매사 불안하다.’)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성취기대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고,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3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이정란(2003)이 개발한 유아 자기조절능력척도를 수정하여 2개 하위 요인의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단일한 것에 대한 편향성을 줄이고, 가정과 기관에서 유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척도에 대해 어머니와 교사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고 두 응답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인 자기점검(11문항)은 유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행위, 사고, 정서를 사회·물리적 상황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점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기통제(13문항)는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에 맞춰 내적인 정서를 억제하며 순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 척도의 *Cronbach's α*계수는 .94이며 하위 요인별로 자기점검 .91, 자기통제 .94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학습관여

유아를 둔 어머니의 학습관여를 측정하기 위해 이정실(2011)의 부모 학습관여 척도의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 요인과 권재기(2001)의 교육적 기대 하위 요인 중 ‘가정학습활동’ 요인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아동 대상이나, 연구자가 유아 대상으로 수정하였다(2문항 삭제, 2문항 추가). 즉, 최종 척도는 4개 하위 요인, 총 31문항이었고,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8문항)은 유아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고(예: ‘나는 공부 방법에 대한 좋은 정보를 모아서 전해 준다.’), 존중과 사랑(7문항)은 유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를 보임을 의미한다(예: ‘나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학업성과압력(9문항)은 유아에게 학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예: ‘나는 아이에게 공부에 대해 말할 때 “누구보다 더 잘해?” 라고 말한다.’), 가정학습활동(7문항)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의 학습활동을 돕는 것이다(예: ‘나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네 요인 중 ‘학업성과압력’은 다른 요인들과 달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학습에 관여를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며, 하위 요인별로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84, 존중과 사랑 .84, 학업성과압력 .81, 가정학습활동 .80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대한 질문지의 문항과 조사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교사 2인, 아동학 박사 2인의 응답과 의견을 바탕으로 검사도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사는 연구대상인 유치원을 제외하고 만 5세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는 일대일 개별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비연구 결과 유아들이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별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11월 초부터 12월 까지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교사용과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1주 뒤에 방문하여 회수하였고, 유아는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내에서 유아들이 익숙하고 쾌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검사실을 정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약 20-30분이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유아들을 면접한 검사 결과와 어머니와 교사의 질문지 응답 내용을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첫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계층적(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습능력-기대불안에 따른 군집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와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의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화

본 연구에서는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대한 교차군집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의 점수 범위를 동일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Z점수(평균 0, 표준편차 1)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학습능력-기대불안 성향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기초학습능력($F = 252.54, p < .001$)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F = 165.22, p < .001$)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1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Z = .55$)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Z = .97$)이 모두 양(+)의 값이고, 군집 2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Z = .45$)은 양(+)의 값이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Z = -.80$)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Z = -2.12$),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Z = -.81$)이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군집 4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Z = -.98$)은 음(-)의 값이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Z = .44$)은 양(+)의 값을 나타냈다(표 1 참조).

표 1.

군집분석의 표준화된 점수

		집단 구분				<i>F</i>
		군집 1 (<i>n</i> = 76)	군집 2 (<i>n</i> = 100)	군집 3 (<i>n</i> = 22)	군집 4 (<i>n</i> = 41)	
기초학습 능력	표준점수	.56	.44	-2.12	-.98	252.54***
	<i>MSD</i>	81.28(4.99)	79.73(6.41)	45.89(8.85)	60.94(7.49)	
성취기대 불안	표준점수	.97	-.80	-.81	.44	165.22***
	<i>MSD</i>	3.15(.38)	2.07(.33)	2.07(.38)	2.83(.28)	

*** $p < .001$.

다음으로 군집분석에 따른 집단 빈도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χ^2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는 61.27($p < .001$)으로 군집 간의 차이가 있다(표 2 참조).

표 2.

군집분석에 대한 적합도 검증

	관측수	기대빈도	잔차
군집 1	76	59.8	16.3
군집 2	100	59.8	-18.8
군집 3	22	59.8	-37.8
군집 4	41	59.8	40.3
합계	239		

Chi-square=61.27, *df*=3, $p < .001$

마지막으로, 학습능력-성취불안 군집명과 설명을 살펴보면(표 3참조), 군집 1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정적인 특성으로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으로 명명하

였고, 군집 2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모두 낮은 부적의 특성을 나타냄으로 군집 3을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낮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군집별 군집 명과 설명

군집	군집 명	군집 설명	n	백분율(%)
군집 1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유아 기초학습능력 높음 어머니 성취기대불안 높음	76	31.8
군집 2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유아 기초학습능력 높음 어머니 성취기대불안 낮음	100	41.8
군집 3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유아 기초학습능력 낮음 어머니 성취기대불안 낮음	22	9.2
군집 4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유아 기초학습능력 낮음 어머니 성취기대불안 높음	41	17.2
전 체			239	100

각 군집의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군집분석 결과를 도식화하여 다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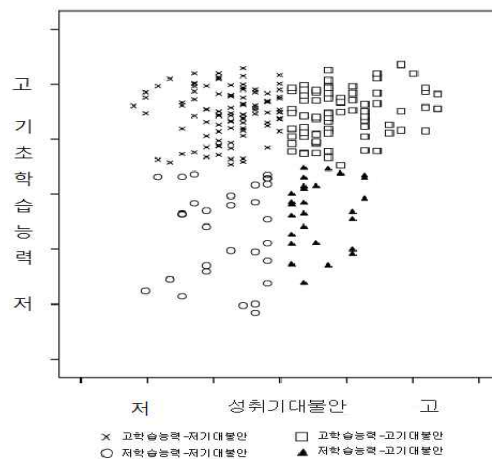


그림 1. 군집 분석 성향

2.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어머니의 학습관여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별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과 사후검정(Scheffé)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F = 8.43, p < .001$)과 하위 요인인 자기점검($F = 9.90, p < .001$), 자기통제($F = 4.24, p < .01$)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의 기초 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이 낮은 집단일 때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4.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차이

변수	구분	<i>n</i>	<i>M(SD)</i>	<i>F</i>	<i>Scheffé</i>
자기 점검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76	3.80(.41)	9.90***	4<1=3<2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0	3.83(.44)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22	3.55(.38)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41	3.45(.48)		
자기 통제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76	3.58(.50)	4.24**	4<1=3<2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0	3.65(.47)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22	3.39(.59)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41	3.36(.49)		
자기 조절 능력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76	3.68(.39)	8.43***	4<1=3<2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0	3.74(.41)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22	3.46(.45)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41	3.40(.40)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에 따른 어머니의 학습관여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학습관여 하위 요인 중 존중과 사랑($F = 12.85, p < .001$), 학업성과압력($F = 21.79,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F = 1.15, ns$), 가정학습활동($F = 2.08, ns$)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으면서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가장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학업성과압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습관여 요인 중, 존중과 사랑

및 학업성과압력은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에 따른 어머니의 학습관여 차이

변수	구분	n	M(SD)	F	Scheffé
학업에 대한 조인과 정보 제공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76	3.31(.49)	1.15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0	3.35(.50)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22	3.28(.54)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41	3.18(.53)		
존중과 사랑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76	3.81(.47)	12.85***	4<1=3<2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0	4.10(.43)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22	3.99(.58)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41	3.61(.47)		
학업 성과 압력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76	2.84(.45)	21.79***	3=2<1=4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0	2.34(.45)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22	2.32(.42)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41	2.74(.46)		
가정 학습 활동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76	3.47(.49)	1.87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0	3.43(.56)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22	3.42(.68)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41	3.22(.58)		
학습 관여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76	3.36(.36)	2.16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0	3.31(.34)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22	3.25(.41)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41	3.19(.36)		

*** $p < .001$.

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에 따라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별 나타내는 특성 변인

위에서 군집별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변인들이 군집 구분을 예측해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의한 6개 변수에 대한 검정 결과, 카이제곱의 값이 115.87($p < .000$)으로 모형이 유의하고, R^2 (Nagelkerke)값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42%임을 알 수 있다(표 6참조).

그리고 모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도비를 검정한 결과(표 7참조),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이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6.

모형 적합 정보

모형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R ² (Nagelkerke)
	-2 로그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만	597.93				
최종모형	482.05	115.87	18	.000	.42

표 7.

우도비 검정

효과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정		
	축소모형의 -2 Log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상수	534.73	52.68	3	.000	
자기점검	498.62	16.57	3	.001	
자기통제	482.80	.75	3	.862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488.29	6.24	3	.101	
존중과 사랑	496.95	14.90	3	.002	
학업성과압력	528.40	46.35	3	.000	
가정학습활동	489.15	7.10	3	.069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의 특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첫째, 군집 1인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군집을 기준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은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가정학습활동, 학업성과압력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성과압력과 가정학습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어머니 쌍이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각각 1.95배, 0.28배, 0.55배 높아지고,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이 낮을수록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집단에 속할 확률이 0.55배, 0.26배 높아지며,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기점검 수준이 낮을수록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0.42배 높아진다. 이는 다시 말해,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가정학습활동 점수는 높을수록 유아-어머니가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표 8 참조).

표 8.

학습능력-기대불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군집 기준)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자기점검	-.01	.19	.00	1	.959	.99
자기통제	.17	.18	.85	1	.356	1.18
학업에 대한 조인과 정보제공	.53	.29	3.30	1	.069	1.70
존중과 사랑	.67	.24	7.78	1	.005	1.95
학업성과압력	-1.27	.23	31.08	1	.000	.28
가정학습활동	-.60	.29	4.40	1	.036	.55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자기점검	-.61	.30	4.02	1	.045	.55
자기통제	-.11	.28	.15	1	.696	.90
학업에 대한 조인과 정보제공	.34	.41	.66	1	.417	1.40
존중과 사랑	.37	.33	1.23	1	.268	1.45
학업성과압력	-1.35	.33	16.74	1	.000	.26
가정학습활동	-.35	.40	.77	1	.380	.70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자기점검	-.87	.22	11.99	1	.000	.42
자기통제	-.05	.23	.05	1	.825	.95
학업에 대한 조인과 정보제공	.43	.35	1.54	1	.214	1.54
존중과 사랑	-.41	.27	2.22	1	.136	.67
학업성과압력	-.28	.25	1.29	1	.256	.76
가정학습활동	-.63	.34	3.48	1	.062	.53

(기준 범주는 군집 1(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임)

둘째,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 가정학습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과압력과 가정학습활동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어머니 쌍이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각각 0.51배, 3.55배, 1.83배 증가하고, 유아의 자기점검 수준이 낮을수록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0.55배 증가한다. 또한 유아의 자기점검과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이 높을수록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각각 0.42배, 0.34배, 2.68배 증가한다. 즉,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과 가정학습활동 점수가 낮고 유아의 자기점검과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어머니가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표 9 참조).

표 9.

학습능력-기대불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군집 기준)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자기점검	.01	.19	.00	1	.959	1.01
자기통제	-.17	.18	.85	1	.356	.85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53	.29	3.30	1	.069	.59
존중과 사랑	-.67	.24	7.78	1	.005	.51
학업성과압력	1.27	.23	31.08	1	.000	3.55
가정학습활동	.60	.29	4.40	1	.036	1.83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자기점검	-.60	.30	4.08	1	.043	.55
자기통제	-.28	.28	1.02	1	.314	.76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20	.37	.28	1	.599	.82
존중과 사랑	-.30	.30	.97	1	.326	.74
학업성과압력	-.09	.30	.09	1	.771	.92
가정학습활동	.25	.36	.49	1	.482	1.28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자기점검	-.86	.24	12.58	1	.000	.42
자기통제	-.22	.22	.97	1	.325	.80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10	.34	.08	.1	.776	.91
존중과 사랑	-1.08	.29	14.01	1	.000	.34
학업성과압력	.99	.26	14.26	1	.000	2.68
가정학습활동	-.03	.33	.01	1	.934	.97

(기준 범주는 군집 2(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임)

셋째,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은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과 유아의 자기점검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어머니 쌍이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3.87배, 1.83배 높아지고, 유아의 자기점검 수준이 높을수록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1.81배 높아지며,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이 높을수록, 존중과 사랑 수준이 낮을수록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2.93배, 0.46배 높아진다. 바꿔 말하면,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과 유아의 자기점검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은 낮을수록 유아-어머니가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높다(표 10 참조).

표 10.

학습능력-기대불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군집 기준)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자기점검	.61	.30	4.02	1	.045	1.83
자기통제	.11	.28	.15	1	.696	1.12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34	.41	.66	1	.417	.72
존중과 사랑	-.37	.33	1.23	1	.268	.69
학업성과압력	1.35	.33	16.74	1	.000	3.87
가정학습활동	.35	.40	.77	1	.380	1.42
<hr/>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자기점검	.60	.30	4.08	1	.043	1.81
자기통제	.28	.28	1.02	1	.314	1.32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20	.37	.28	1	.599	1.22
존중과 사랑	.30	.30	.97	1	.33	1.34
학업성과압력	.09	.30	.09	1	.771	1.09
가정학습활동	-.25	.36	.49	1	.482	.78
<hr/>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자기점검	-.27	.32	.72	1	.397	.77
자기통제	.06	.30	.04	1	.843	1.06
학업에 대한 조언과 정보제공	.10	.45	.05	1	.829	1.10
존중과 사랑	-.78	.37	4.45	1	.035	.46
학업성과압력	1.07	.35	9.19	1	.002	2.93
가정학습활동	-.28	.43	.41	1	.523	.76

(기준 범주는 군집 3(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임)

마지막으로,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요인은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점검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어머니 쌍이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2.40배 증가하고,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각각 2.37배, 2.93배, 0.37배 높아지며,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이 낮을수록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에 속할 확률이 2.93배, 0.37배 높아진다. 이는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유아의 자기점검 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어머니가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표 11 참조).

표 11.

학습능력-기대불안에 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군집 기준)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자기점검	.87	.25	11.99	1	.001	2.40
자기통제	.05	.23	.05	1	.825	1.05
학업에 대한 조인과 정보제공	-.43	.35	1.54	1	.214	.65
존중과 사랑	.41	.27	2.22	1	.136	1.50
학업성과압력	.28	.25	1.29	1	.256	1.32
가정학습활동	.63	.34	3.48	1	.062	1.88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자기점검	.86	.24	12.58	1	.000	2.37
자기통제	.22	.22	.97	1	.325	1.24
학업에 대한 조인과 정보제공	.10	.34	.08	1	.776	1.10
존중과 사랑	1.08	.29	14.01	1	.000	2.93
학업성과압력	-.99	.26	14.26	1	.000	.37
가정학습활동	.03	.33	.01	1	.934	1.03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1.03	
자기점검	.27	.32	.72	1	.397	1.31
자기통제	-.06	.30	.04	1	.843	.943
학업에 대한 조인과 정보제공	.10	.34	.08	1	.776	1.10
존중과 사랑	1.08	.29	14.01	1	.000	2.93
학업성과압력	-.99	.26	14.26	1	.000	.37
가정학습활동	.03	.33	.01	1	.934	1.03

(기준 범주는 군집 4(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임)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별 특성을 구분하는 예측 요인은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 가정학습활동으로 나타났고, 각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이 모두 높은 집단은 유아의 자기점검과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및 가정학습활동 점수가 높고,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은 낮다. 둘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은 유아의 자기점검과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과 가정학습활동 점수가 낮다. 셋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은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은 높다. 넷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낮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

준이 높은 집단은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이 높다.

따라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가장 바람직한 집단을 기준으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으나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도 높은 집단을 살펴본다면,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업성과압력과 가정학습활동을 줄이고, 자녀에게 존중과 사랑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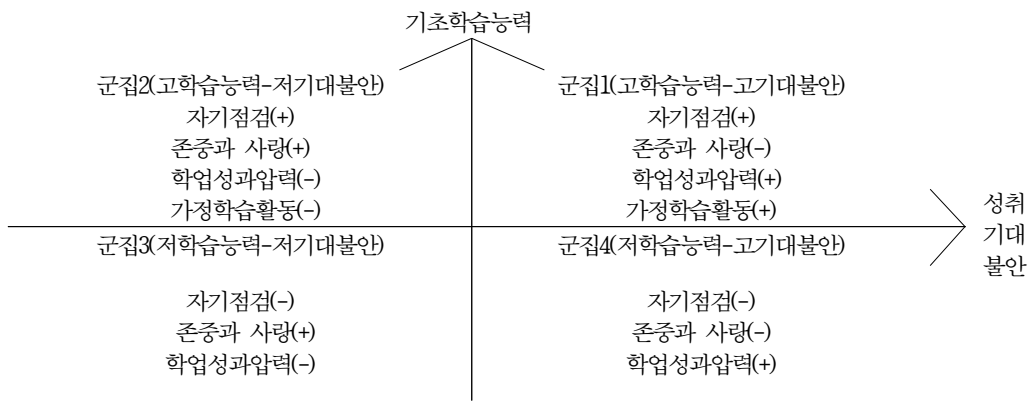


그림 2.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별 특성 요약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 직전 만 5세 학급 유아들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각 군집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 총 9기관에서 표집한 만 5세 학급의 유아 239명과 해당 유아의 어머니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대한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이 총 4개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모두 높은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군집,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군집으로 나뉘었고,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모두 낮은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군집,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낮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위에서 예측한대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

대불안의 점점은 뚜렷한 양상 없이 사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단순히 유아의 학습능력에 따른 상-하 집단을 구분하여 학습 계획 및 지도를 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이 집단 구분과 관련됨을 감안하여 유아와 어머니에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 간에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하위 요인인 ‘자기점검’, ‘자기통제’ 및 어머니의 학습관여 하위 요인 중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자기점검’, ‘자기통제’, ‘자기조절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은 낮은 집단에서 이 변인들의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군집은 유아의 ‘자기점검’, ‘자기통제’, 즉,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조절이 교육적 성취(박영신, 김의철, 2003)와 삶의 질(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 변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에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이 강할수록 유아의 자기통제 수준이 낮다는 연구(최은아, 이희선, 2012)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습관여 요인 중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집단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이 높고, 반대로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집단에서는 낮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수준은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이 강한 두 집단에서 높고, 성취기대불안이 약한 두 집단에서 낮았다. 즉, 존중과 사랑 측면의 학습관여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나타나고, 학업성과압력으로 나타나는 학습관여는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존중과 사랑의 관여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상호작용 질, 가족의 관계, 가정생활 및 형태 등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변수용, 김경근, 2008)를 지지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이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성과압력을 보인 결과는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강할 때 자녀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수준을 가진다는(이영주, 2005; 조진주, 2008) 연구와 일치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학습관여 요인 중에서 ‘존중과 사랑’은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을 때 나타나고, ‘학업성과압력’은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을 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학습관여는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른 군집별로 군집 구분을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자기점검’,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학업성과압력’, ‘가정학습

활동' 이 군집별로 차별화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고학습능력-고기대불안' 집단은 유아의 '자기점점' 과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가정학습활동' 수준은 높고,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은 낮았다. 둘째, '고학습능력-저기대불안' 집단은 유아의 '자기점점',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수준은 높고,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가정학습활동' 수준은 낮았다. 셋째, '저학습능력-저기대불안' 집단은 유아의 '자기점점',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이 낮은 수준이고,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은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저학습능력-고기대불안' 집단은 유아의 '자기점점', 어머니의 '존중과 사랑' 은 낮은 수준인 반면, 어머니의 '학업성과압력' 은 높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먼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요인인 '자기점점' 은 기초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드러났다. 유아가 자기점점을 통해 철자원리가 읽기와 쓰기에 적용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글자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와 철자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백은정, 김자경, 2012)와 같은 맥락에서, 자기점점 과정이 유아의 학습 경험에 포함됨으로써 인지적 발달이 촉진되어 기초학습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습관여 요인 중 '학업성과압력' 과 '존중과 사랑' 은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높은 기대치와 목표를 설정하면 자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녀의 실수에 대해 허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과도하게 보호 또는 간섭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영주, 2005; 조진주, 2008; Ginsbure et al, 2006; Wilhelm & Steketee, 2006)을 지지한다.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따라 '학업성과압력' 과 '존중과 사랑' 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손영미(2016) 연구 결과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은 두 집단에서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학습관여 중 '가정학습활동' 수준이 대비된 것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가정학습활동을 많이 하고,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가정학습활동을 적게 하였다. 이는 불안 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지시적 교수법을 선호하고 자녀에게 학습지도와 경험을 많이 제공한다는 결과(송명숙, 옥선화, 2010)와 일치한다. 동일하게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학습활동에 어머니가 많이 관여하고, 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는 어머니의 직접적 관여가 적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두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유아의 학습과정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하여 학습자인 유아의 학습동기나 스트레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학업 성취는 어떻게 나타날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지능과 가정환경을 함께 측

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지능도 측정하여 관계를 살펴보거나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고,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SES 등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대한 척도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어머니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주양육자의 관찰 및 보고가 유용하다는 주장(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도 있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인지하는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도 함께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의 참여가 많아졌고,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부적응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영희, 장래수, 2004)를 보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불안도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변인도 추후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집 특성에 대한 일반화를 위한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에 대한 기준의 표준점수가 설정될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후속연구에서는 군집 특성에 대한 일반화하기 위하여 많은 표본 수와 다양한 대상의 선정하여 군집의 표준점수와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과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이 상호작용하여 군집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어머니의 불안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와 관련된 특정 불안을 살펴봄으로써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부합하면서 시의적절한 시도를 하였다. 또한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취학 전 유아의 기초학습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연구들에서 제공하지 못한 어린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즉, 유아의 기초학습능력과 어머니의 성취기대불안을 두 축으로 한 군집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학습능력-기대불안 군집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자기점검, 자기통제)과 어머니 학습관여(존중과 사랑, 학업성 과압력)가 군집별 차이를 보이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또는 부모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곽아정(2006).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 척도의 타당화 및 학습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효경, 이종승(2011). 유아 기본학습기능 진단검사의 성취수준 설정. *교육연구논총*, 32(1), 1-20.
- 권재기(2001). 아동의 지각된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과외학습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근(1996). 한국 중학생의 학업 성취 결정요인. *교육문제연구*, 8, 83-103.
- 김남희, 황해익(2005). 유아기초학습능력검사 개발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277-296.
- 김동일, 이대식, 신중호(2009). 학습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2판). 서울: 학지사.
- 김동일, 최종근(2004). 학습장애 조기선별을 위한 읽기 전 능력검사의 현황과 개발 방향. *교육학연구*, 42(3), 275-299.
- 김마리아(2013).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이 자녀의 자아개념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3(2), 117-139.
- 김연수(2008).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업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장래수(2004). 부모의 완벽주의, 우울,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행동. *놀이치료연구*, 8(1), 118-138.
- 김종백, 김준엽(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중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도현심, 이희선, 김상희, 최미경, 이사라(2011). *인간발달과 가족*. 서울: 교문사.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취에 대한 중단 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사회문화제*, 10(3), 37-59.
- 백은정, 김자경(2012). 자기점검전략이 쓰기학습장애 학생의 철자쓰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9(1), 67-88.
- 변수용, 김경근(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손영미(2016).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숙, 옥선화(2010). 취학 직전 유아기 자녀의 학업 교육에 대한 부모 신념과 참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361-384.
- 심미옥(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위지희(2014).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위지희, 채규만(2015).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34(4), 945-970.
- 이문정(2003). 어머니의 취업유모에 따른 영아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3), 173-195.
- 이민경(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영주(2005). 완벽주의와 특성불안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실(2011). 부모 학습관여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성취목표가 학습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아(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존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26(1), 121-138.
- 임종석(2000). 부모의 학업압력과 아동의 성취불안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진(2016).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과 성취관심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 -과제수행 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명숙, 고은미(2007). 교사와 부모의 유아에 대한 학습적·일반적 기대와 유아의 기초학습수행과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11(3), 497-514.
- 정현숙(2002).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학업동기와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주(2008). 청소년의 애착과 완벽주의성향이 특성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자, 심공창지, 이광형(2006). 육아불안 구조의 국제비교-한국·일본·대만 어머니의 자녀양육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1(1), 163-176.
- 최은아, 이희선(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분이불안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2(4), 133-150.
- 추상엽, 임성문(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성취 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제 2차 '공교육 정상화' 정책 포럼;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의 실태. 한국교육과정평가원(ORM 2015-7).
- 한성열(2008).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의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33-46.

- 현정환(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홍영주, 이지연(2012). 부모의 학업 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325-342.
- Barkley, R. A.(1997).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s: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121(1), 65-94.
- Blair, C.(2002). School readiness: Integrating cognition and emotion in a neurobi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American Psychologist*, 57(2), 111-127.
- Bronson, M. B.(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ell, C. A., Etheridge, W., Hungerford, A., & Kelley, S.(1997). Socialization of Self-Regulatio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ver Age and Contex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Gallagher, K. C.(2002). Does child temperament moderate the influence of parenting on adjustment?. *Developmental Review*, 22(4), 623-643.
- Ginsburg, G. S., Grover, R. L., Cord, J. J., & Ialongo, N.(2006). Parenting behaviors among anxious and non-anxious mothers: Relation with concurrent and long-term child outcom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5, 323-328.
-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O' Shaughnessy, T. E., Lane, K. L., Gresham, F. M., & Beebe-Frankenberger, M. E.(2003). Children placed at risk for learning and behavioral difficultie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4(1), 27-35.
- Sluyter, D., & Salovey, P.(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s.
- Wilhelm, S., & Steketee, G. S.(2006). *Cognitive therapy for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 guide for professionals*. New Harbinger Publications.

Abstract

Cluster Analysis by Children's Basic Learning Ability and Mother's Achievement Expectation Anxiety: Predictability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nd Mother's Learning Involvement

Jun, Eun Ock

(Dept. of Living Culture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hoi, Na ya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clustering using 5-year-old children's basic learning ability and mothers' achievement expectation anxiety, and compared the impact of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and mothers' learning involvement for each cluster. The subjects were 239 children (120 boys & 119 girls) aged 5 and attending 9 kindergarten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and also their mot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non-hierarchical (K-means) cluster analysis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child pairs were classified into four clusters of 'high learning ability-high expectation anxiety', 'high learning ability-low expectation anxiety', 'low learning ability-low expectation anxiety', or 'low learning ability-high expectation anxiety' group. Second, the level of child's self-monitoring, self-control, and mother's respect and lov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 learning ability-low expectations anxiety' group than the 'low learning ability-high expectation anxiety' group. Also,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er in the 'high learning ability-high expectation anxiety' group than the 'low learning ability-low expectations anxiety' group. Third, child's self-monitoring, mother's pressure for academic achievement, home learning activities, and respect/love for child predicted the clustering using children's basic learning ability and mothers' achievement expectation anxiety.